

전문가포럼 -여성평화운동의 아젠다 개발

전쟁 속의 여성들, 전쟁의 기억을 살리는 여성들

○ 일시: 2004년 11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

○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여성부





전쟁 속의 여성들, 전쟁의 기억을 살리는 여성들

- 일시 : 2004년 11월 2일(화) 오후1시30분~5시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2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성부**

전쟁 속의 여성들, 전쟁의 기억을 살리는 여성들

진행

- 사회 : 김엘리(평화여성회 정책위원)
- 토론(베트남전쟁과 여성) : 김현아(나와우리 운영위원)
- 토론(한국전쟁과 여성) : 이임하(역사학연구소 연구원)
- 토론(이라크전쟁과 여성) : 임영신(이라크평화네트워크 평화활동가)
- 전체토론 : 참석한 모든 사람들

<양해말씀>

녹취상대가 좋지 않아 포럼 전체 내용을 원활히 담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부분 생략)

김현아 : 이라크 군정할 때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차이가 있었다면, 베트남 전쟁의 경우 게릴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전군인의 경우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적이 보이지 않은 경우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말이나 하고 참전군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베트남 전쟁의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베트남에 실제로 가서 들여다보면 베트남의 여성들은 전쟁에 준하는 보급무장이나 전후방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들을 교란하면서 돌아가는 작전을 수행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잘 볼 수 있는게 여성박물관이었어요.

하노이와 호치민 시에 가보면, 여성박물관이 따로 있어요. 하노이가 수도죠. 호치민에 가는 모든 관광객들은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입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에 가보면 여성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베트남 전쟁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여성박물관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박물관에 가보면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베트남 여성이 미군을 끌고 오는 모습이나 고문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수난당하는 여성들이 적에게 잡혀 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죽거나 하는 장면입니다. 투쟁하는 여성들, 실제로 총을 들고 싸우는 여성들.

베트남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땅굴을 보면서 국제땅굴을 보면서 경악을 해요. 이 땅굴 속에서 어떻게 모마아이가 10살까지 살아가는지 그 사실에 놀라게 됩

니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땅굴을 파면서 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땅굴을 파거나 아이를 기르는 일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넌 마지막에 다른 섹션에 가보면, 연대하는 여성의 장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세계의 많은 여성 활동가들이 인다라 간디를 시작해서 프랑스 운동가, 미국의 기자들이 필립 속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사진을 찍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과의 전쟁 30년과 이전에 프랑스의 100년 동안의 식민지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식민지 시대를 걸치면서, 베트남은 자기보다는 큰 강대국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싸워온 역사입니다.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 싸우면서 이기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구분하면서 역사를 구분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항불시기에 뿔했습니다'라고 역사를 구분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항불시기에 뿔 했습니다. 항미시기에 뿔 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항불시기에 뿔했습니다. 항미시기에 뿔 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불시기에 프랑스 여성들이 베트남으로 향하는 군함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있으면서 전 세계에 있어서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것이 당시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잘 볼 수 있는 다큐가 얼마 전에 세비큐브에서 상영이 되었던 데요 네덜란드의 어느 감독의 작품인데, 영화제목이 '북위 19도'인데, 북위 19도라는 영화는 베트남에 디엠지라고 있는데, 디엠지의 어느 마을에는 원래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곳에 실제로 들어가서 촬영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호치민하

고 천하다는 것을 내일이 감독이 목숨을 걸고 허락을 받아서 마을에 들어가서 영화를 찍었는데, 이 영화에서 언제나 어디서나라는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미군의 비행기가 나타나면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땅굴에 숨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이, 이 여성들에게는 전쟁 시기에도 농사를 짓고 아이를 돌보고 실질적으로 총을 들고 전투를 해야 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여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 여성들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직접 여성박물관에 가보면 굉장히 실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아주 작은 규모에 몇 칸을 나눠 사진 한 장, '꾸찌'라는 베트남의 스카프 등 단지 몇 컷의 사진과 편지를 전시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쓴 몇 장의 사진이 전부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낯선 이방인이 보면 '아니 이게 뭐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의 스카프와 한 장의 편지 등을 안내원이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이것들을 보면 많이 다들 것입니다.

어떻게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아주 훌륭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군에 의해서 최대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밀라이 전쟁 진실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여자들 밖에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죽이는 것으로 나와요. 실제로 여자는 죽은 사람으로만 나와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머리핀, 누구의 신발,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잘 마련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낯선 나라의 여자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때 그 당시 여성들이 어떻게 살

있을까?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보고자하는 지점을 고 민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자 : 이번엔 우리가 이라크 전쟁으로 한번 넘어갈 볼까요. 이번 이라크 전쟁 에서 수화이라면, 걸프전쟁 때에는 미국의 시선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보 게 되었는데, 이번 이라크전쟁에서는 우리가 직접 전쟁의 현장에 들어가서 평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에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라고 메시지를 전할 때 그 곳에 여성들이 있 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슬픔이 상처로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임영신 선생님께서는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임영신 :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과 다 른 차이점이 있다면, 이라크 전쟁에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전쟁의 현장에 여 성들이 들어가서 소통의 공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론인 중에서 15년째 작업을 하고 있는 강경란씨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인들이 들어갔었고, 언론인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 영상물은 분쟁지역전문가 인 강경란씨가 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 람들을 만났습니다.

강경란씨는 현재 10년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있을 때 강경란씨와 함께 있었는데, 이 영상물은 승자인 남성의 입장 에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여성, 여성의 눈으로 역사를, 전쟁을 기록하는 것이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즉 이라크인의 눈으로, 여성의 눈으로, 전쟁을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 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 이라크 상황을 반영한 영상물 상영 -

씨엔엔에서는 이라크 사람들이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걸음만 더 병원 안쪽으로 들어와서 방충을 했다면 수술을 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실업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군이 떠난 자리를 채우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이라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라크 여성들을 인터뷰를 하면, 이라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라크에 120개 공기업이 있는데, 공기업들이 민영화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의 대통령이 이란 여성과 결혼을 했잖아요. 정책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실제로 이라크나 이란의 여성들은 우리보다 더 개방적인 것 같아요.

이라크에 백 오십 여개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아직 여성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활동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재건과정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재건과정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과 고문의 피해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여성을 가정 안에, 여성들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 베트남의 시내로 들어가면, 베트남의 항불 여전사길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유관순 정도 됩니다. 여성박물관의 거리도 통일 여전사의 길입니다. 하이마 두명의 친자매의 거리다. 걸으로 보기에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항전을 했던 여성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트남의 미

소'라고 불리는 여성이 있어요. 사형을 받고 가는 길에 꽃을 꺾었는데 꽃을 꺾은 그 자리에 나중에 꽃이 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가는 것이 전쟁보다 더 힘들었다. 경제봉쇄 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폭탄투하 등으로 황폐화되고 86년 모다모이정책 이전까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여성들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자기 슬픔은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거예요.

베트남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전쟁) 이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니가(당신)이 처음이다라고. 베트남 전쟁 이후 30년 이래 처음으로 한국인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베트남전쟁 때 한국인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또 남성과 여성들이 보이는 모습(증언하는 모습)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남성들이 다 거실로 들어와요. 남성들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여성들은 거실과 부엌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고, 오라고 하면 그때서야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창산유수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증언을 하는) 할머니는 (이전에) 투사였던 거예요. 안 나타나고 끝까지 우리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는 공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의 배치가 다른 것 같아요. 인민위원회 부주석도 지내셨다고 해요. 말하는 과정과 표현하는 방식에서 남, 여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로어 질문 : 그것이 베트남 사회의 가부장제와 관련이 있나요?

김현아 : 베트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호치민이 죽었을 때 유언으로 “여성들을 많이 배려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어머니 영웅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자식을 3명 정도 잃은 어머니를 ‘어머니 영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동안 고통의 커밍아웃을 못했던 것이고 특히 베트남에서는 고통의 연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자 : 한국전쟁때, 여성의 증언을 모아가는 한 여기자의 이야기인데요. 빨치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설득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여성들에 있어서 전쟁에 대한 기억이란 무엇인가? 여성들로 하여금 그 기억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기억하고 싶은 것과 잊은 싶은 것, 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것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안정재 선생님께서 가부장제와 연관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셨는데 김현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아 : 기억하고 싶은 것과 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살기 위해서 해왔던 내 이야기는 소설 10권 분량은 된다. 이것이 공식화될 때는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말을 해야 할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할머니들은 군사세상이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되고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과 또 한 부분은 가부장제 제도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 : 기억의 정치화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후 복구 과정에서 속에서 여성들이 다시금 가정

안에 머물거나 또는 정치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예를 들면, 이슬람의 종교적인 이념들 또는 베트남의 유교적 이념, 한국도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이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성을 통제했던. 지금 하나의 국가질서로 자리 잡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특히, 사실은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남성이 없었던 상황에서 여성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공적 영역에서 진출을 함으로써,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성의 지아가, 공적인 영역에서 (다시금 영감으로 인해 조그만 기회가 되면서) 역전과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한국전쟁의 경우에 대해서 이임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 : 그럼 이임하 선생님이 준비하신 한국전쟁 이후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임하 : 아까, 그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성들이 후방에서, 초등학교, 채신부의 기술요원, 여자 경찰관들이 채용되었었는데, 해방 이후에 공공기관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2만4천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여성들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에 업무능력 등 그런 객관적인 기준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던거죠.

아마, 50년대에 보면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인 '장충연'이란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금융연합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해방이후 많은 여성들이 쫓겨나면서 대표적인 여성 인제조차도 '필요없다'고 쫓겨나게 되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분식점이나 국밥집 등도 전쟁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공식적인 집계나 통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해방이후에 말과 글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 중 3~4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과 글을 사용할 줄 하는 사람이 6~7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의무교육제도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구요.

또 잡부금이라고 해서 학교 운영비, 책결상 구입비 등 모두 학부모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학부모 중에서도 여성들의 노력이 많았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후 50-60년대에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사회자 : 50년대 간첩단 사건, 여성들이 은행에 가지 않고 돈을 모으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아, 계모임..... 계모임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게 되는데요, 계모임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이유에는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제재, 그리고 종족,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들에 대한 제약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에서 어떻게 통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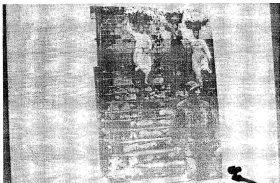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럼 여기서 한편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쉬도록 하죠.

과거의 이러한 전쟁이, 오늘날 현재화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전쟁의 기억이라는 것이 개인의 하나의 기억으로 저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재에서 다시금 의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화되는 개인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족의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국군의 날, 전쟁영화 등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재연되면서 우리들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지배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런 이입하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사진설명>







2. 소년(남성), 말하다



4. 강간당한 어머니 - 강간된 아이 자와 정수 지키기



이입하 : 전쟁 속에서, 전후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과연 한국전쟁을 기억할 때, (객관적 사실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될 때 과연 여성들이 보여지는가?

일단 한국전쟁 이미지하면 네 가지로 구분 짓는데요, 하나는 남침했다, 다른 하나는 인천상륙작전, 다음은 폐허, 그리고 피난민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이것은(이 사진은) 당시 남침했을 때를 극대화시키는 사진인데요, 한국전쟁하면 항상 인민군 군대가 탱크를, T-44형 탱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탱크들이 서울시가를 행진하는 모습.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또 하나의 한국전쟁 이미지인 ‘인천상륙작전’ 사진이구요.

미군이 한반도에 언제 상륙을 하나요. 50년 7월 1일 부산으로 들어오는데요, ‘스미스 포크스 일부부대’라고 합니다. 7월 7일날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이 됩니다. 이제 인천상륙작전은 9월 15일날 계획을 했고, 그날들이 오구요, 그래서 7개국의 함대가 12척이, 상공에는 헬기 1천여대가 대기하고 있고, 20여분만에 인천 월미도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인천 연평에 있다는 ‘자유수호비’라고 하구요, 그 다음은 폐허가 된 서울시.

이것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나머지 가교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한강다리 폭파의 경우를 보면 2월 7일날 이승만이 서울을 떠났고 2월 28일날 새벽에 폭파가 되었거든요, 폭파하는 그 순간 서울시에는 어떤 식의 방송이 나오고 있었냐면 ‘서울시민은 좌지우지 말라고’ ‘우리 군이 복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방송이 되는 가운데 다리가 폭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이건 한 소년의 사진이구요, 그 다음에 ‘피난’이라고 하는 이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일거예요. 남으로 내려오는 평화철교 모습을 찍은 모습이구요 나중에 이 기

자가 풀리처상을 받았던 사진이구요.

다음 사진은 피난가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곁을 든 여자가 아이를 업고 피난가는 모습, 이것은 피난민들이 주로 천막촌같은 곳인데 천막을 짓은 모습이구요.

전쟁이 끝났는데, 국가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반공이데올로기구요, 둘째는 조국을 구하는 국군의 모습, 다음은 일본위안군.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반공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을거라 생각하구요. 지금도 50년대 출간된 책이나 출판물 책 뒤에 우리의 맹세라고 적혔거든요.

소위 국군에 관련된 이것은 38선을 넘어가는 그 지점에다가 아치형 그것을 놓고 선을 긋는 것, 그 다음에 미국에 관한 인상인데 1950년 사회교과서에서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미군들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늘날도 팔리는 허쉬초콜렛, 그 초콜렛을 들고 있는 어린이어.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국가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과연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 세 편의 영화는 그동안 반공이데올로가를 뛰어넘는 수작이라는 영화들인데요. 하지만 이런 영화들조차도 남성의 언어, 목소리로 어떻게 이야기하였는가. 또 항상 전쟁영화에서는 여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데, 강간의 이미지를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이죠.

김현아 : 구 베트남 전쟁이 재연되는 듯하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한국땅에 일어났던 전쟁과 관련하여 아까 우리가 봤던 해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

던 작품들 중에 '은마는 오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여성주의 시각을 건드리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영상은 외국영화제에서 사랑을 받았던, 1천만이 봤던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을 보면서 정악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심이 아무도 없었지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었는지? 거기서 뭘 했는지?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어떤 식으로 재연이 되어 있는 불후의 명작들이 몇 편 있지요. '하얀전쟁', '은마는 오지 않는다', '로베르트 쿠르트'처럼 여러분들과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재미있게 읽었던 베트남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떤 계기를 통해 꼼꼼히 읽게 되었는데 훌륭한 작가라는, 공정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재연되는지를 보자면 한국의 남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에 갔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지요. 여기 있어봤자 그렇고 그나마 거기 가면 돈을 번다.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명분이 있었다는 거죠. 베트남 전쟁에 여자들도 돈을 벌기 위해 갔어요.

'무기의 그늘'이란 영화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러 갔지요. 베트남 여자와 한국여자가 있지만 한국여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거기서 꿈을 가지고 갖고 돈을 벌기 위해 갔지만 술 취한 한국 병사가 병을 던지면서 멀리 와서 나라 망신시킨다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똑같이 돈을 벌러 왔는데 한쪽에서는 명분이 주어지면서 베트남 사람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나라 망신시킨다라는 식으로 장면이 나오고, 아니면 밀약협상식으로 강간당하는 여자로 묘사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무기의 그늘' 원작에서는 여자가 안 나옵니다. 그냥 풍경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걸려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얀전쟁'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전쟁에서 정신 질환에 걸려서 온 남자를 구원하는 여자, 미친 남자를 품어서 안아주는 누이의 역할을 하는 게 성녀 아닌 성녀 역할을 하는, 이진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전쟁의 재연에서 여성을 어떻게 세워 놓을 것인가? 장르적인 것과 결합해서 종교적인 시각과 결합되면 여성을 창녀, 성녀, 피해자, 죽는 사람 이런 것 말고는 재연할게 없는 거지요.

한국전쟁에서 여성 빨치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묘사,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 관련한 여성영화중에서 ‘사랑 통지서’가 있었어요. 제작년 전인가 삼 년 전에 여성영화제때 개봉했는데 그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하면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가 20살인가 21살 생일에 자기 약혼자가 베트남에 죽었다는 사망통지서를 받아요.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카메라를 들고 베트남에 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던 모든 베트남여자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과 동행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 가서 사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가게 되는데 베트남에 가기 전에 그 당시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병사들의 아내를 만나는데 흑인과 백인과 일본인과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달랐다는 것이지요. 베트남에 가서는 베트남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던 미망인이라... 미망인이 뭐니까?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아직 죽지 않은 아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따라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과부는 무엇이나고 하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말하는 것이고...

플로어질문 :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했으니까 관계성 속에서 부르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 남자는 뭐라고 부르나요?

김현아 : 남자 같은 경우에 홀아비 이렇게 부르지는 안잖아요? 누구 누구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과부나 미망인이니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말을 딱히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김현아 : 우리가 발표할 때 ‘함락됐다’는 말을 쓰잖아요. 서울이 함락됐다. 미8군이 함락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가? 굉장히 많이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용어를 써야 하는가?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침략전쟁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은 미국의 시각인 것 같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전쟁이라고 해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은 사이공 함락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우는데 탱크가 치고 들어오고 대통령 궁으로 들어오는데 사이공 함락이라 하는데, 그들의 용어는 폐단이고 상관이 없고 무언가 발언할 때 이 말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쓰잖아요. 함락이 됐다. 그냥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그냥 카메라를 들고 가는데 그녀와 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나?를 찾는 거지요. 베트남 여자였어요. 베트남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성매매를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사실 베트남에서는 실질적으로 당료부대라고 있었잖아요. 기지에 가서 돈받고 성매매 하고 이런 것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거거든요.

나만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인데 나중에 자식은 엄마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딸이 어리거나 딸이 없었다. 딸의 입장에서 훑쳐보게 되었던 엄마의 강간장면을 보게 되면서 그 딸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어떻게 딸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이 베트남 여자가 과거와 현재가 겹치면서 나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다. 한편으로는 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꼭 베트남의 역사를 따라 다니면서 전쟁 중에 여자들이 당했던 피해들을 다루었던 영화가 있는데 여성영화제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시선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미국여자의 입장과 베트남 여자의 입장은 굉장히 다른데 감동은 동일시켰다는 것. 굉장히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가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이라크 파병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인이 피해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위치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엘리 : 그럼 전쟁이라는 것이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넘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야기 해 주신 것에서 광복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여성들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에 관해 질문이나 제안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여러 가지 의미는 몇 분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임하 : 서 유럽이나 미국하고 비교하면 적어요. 1차는 500명 2차는 300~400명 3차도 53명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다른 나라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데요 전선에 투입되는 것은 드물구요. 후방에서 행정 임무를 하거나 주로 이런 작업을 했구요. 이런 것을 하다가 52년 말하고 53년 가면 여군으로 자원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나오거든요. 나오게 된 이유 하나가 우리는 직접 총 들고 싸우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기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사람이 꽤 있거든요.

질문 : 간호병은 포함이 안되었나요?

이임하 : 포함이 안되었어요. 간호병같은 경우에 일반병사로서 의미가 많거든요.

김정수 : 오늘 주제가 베트남, 한국, 이라크전쟁과 여성인데 전쟁에서 주요한 행

위자의 미국의 문제를 하나도 거론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각 나라의 전쟁 속에서 상황도 다르고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발전 단계도 다르지만 베트남 전쟁의 경우 이라크의 여성들의 기억은 어떤 것인지, 선생님도 5년 동안 이라크에서 경험하신거로 생각하시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임영신 : 역시 당황케 하시는군요.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국 피해국, 전쟁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지요.

김현아 :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충하지요. 한국전쟁을 이야기 하면서, 사회주의 국제 여성 연맹 보고서에 의하면 전쟁 중 성폭력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하다라고 나와있어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더 각각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시) 성폭력문제는 한국전쟁 끝나고 공개적으로 조사 된 것도 없고 미 군범죄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신문에서 문서화된 건 몇 쪽지 없어요.

김현아 : 베트남에 간 한국 군인들이 강간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여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강간의 명분과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쟁에서는 강간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남베트남 쪽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우리 하고는 다른 모습이지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드러나는 형식으로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암암리에 자신이 받아야하는 고통이 당연히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성폭력은 없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면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에서 강간 사건이 한건도 보고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혹했다고 해요. 수많은 강간 사건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문제가 되고 말병이 되고 그러는데 왜 그쪽에서는 한건도 강간 사건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당연한 거잖아요. 북베트남이든 남베트남이든 민족해방 전선은

어떻게든 마을사람으로부터 식량을 끌어내고 물자를 보급 받아 그쪽 사람들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아야 전쟁을 할 수 있는 데 이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잃어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을 여자들을 강간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베트남 독립해방 전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독립 전쟁이라든지 끊임없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여자들이 끊임없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당시 일어났던 강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미국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국군에 대한 생각은 베트남 사람들이 승리자의 관점에서 한국군을 바라봐요. 이것도 굉장히 다른 관점인데 당신들 굉장히 불쌍하다.

당신들 돈 받고 여기 와서 죽지 않았느냐. 근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잔인했냐. 용병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머슴이 되는 거잖아요. 당신들 너무나 불쌍하다. 그 당시 못 먹고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온 건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잔인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민간인 학살이 들어나는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민간인 학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그 속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한국군에 대한 민간인 학살은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어요. 베트남 교과서에 굉장히 무의미 한 점로 처벌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한국군에게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기억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베트남 사람의 대표적인 한 가지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호암 할머니 한분이 계시는데 우리한테 일기장을 보여 주셨어요. 베트남 전쟁 때부터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쓴 일기인데 그 과정에서 일기를 보면 이 할머니가 70세가 넘으셨는데 90몇년도에 클린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요. 미군이 요구했던 것은 미군 시신을 수습해 가겠다. 미국이 베트남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내 걸었거든요. 그 할머니가 미군 당신들을 누가 우리나라에 오라고 했느냐.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보냈고 우리는 당신들 미군들을 순순히 잘 감당해 주었다. 함께 제사를 지내 주었다. 당신들은 그런 걸 잘 알고 있느냐. 클린턴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써요.

2000년인가 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기를 썼는데 '하늘에는 아직도 독수리가 떠

있고' 이런 시를 써요. 독수리는 미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직도 미국을 정죄한다. 독수리가 우리나라 땅에 다시 땅을 침범 했을 때 다시 싸우겠다고 있고거든요. 전반적으로 남베트남 정부의 재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돌아오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을 온전히 들어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적으로 지역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외교를 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내거는 공식적인 구호가 '과거를 닫고 미래를 보자'라는 입장이에요. 과거를 닫고 미래를 보자는 것에서 문을 닫는다는 것이 베트남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 시적으로 닫는 것과 완전히 꽂 닫는 것이 있는데 과거를 닫는다는 것이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병뚜껑을 닫았다가 언제라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도 굉장히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나라 정부 시책이 과거를 닫고 미래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김엘리 : 시간이 우리가 원래는 4시 반까지인데요 저희가 시작을 15분정도 늦게 시작해서 35분까지 하는 걸로 하세요. 15분 더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옥 : 한가지 질문을 해도 되요? 베트남 전쟁 당시 여성이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는데 이효재 선생님하고 나하고 공동대표가 되어가지고 베트남 파병반대 어머니회 공동대표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현아 : 의사표현 말고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했나요?

김은옥 : 어머니회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대표로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에도 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했다고 하지 말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김현아 : 선생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문자료들을 다 뒤졌는데 국회

의원들이 반대하는 장면은 나오는데 여성들 단체는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김열리 :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여성 주의적 관점으로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통해서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운동을 여성주의 운동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그냥 자유스럽게 질문하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확장시키면서 세 분 선생님께서 의미화를 해주고 입장들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임영신 : 주체와 연동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성주의 평화운동이 여성에 관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 던져져 뒤집어 보기를 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베트남전, 한국전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이 기록되는 것과 기록되지 않는 것 사이의 정치학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누가 기록하고, 누가 어떤 것이 기록되지 않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이 기록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감정제가 되었는지 무엇이 되었는지 보면 이라크에서는 이슬람이라는 것이 되겠고 한국에서는 유교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라크에서 개전 전부터 꼭 보면서 명확한 기록의 정치를 발견하는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거든요.

이라크에서 얼마 전 뉴스가 나왔는데 무스탄 시리암 대학이라는 학교라는 연구소에서 10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그 이전까지 나왔던 조사 연감은 바디카운트에서 1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바디 카운트의 통계는 미디어를 근거로 한 거예요. 전쟁에 대한 공식 기록, 기억이 아니라 공식 기록의 영역을 찾아보면 역사하고 미디어 두 가지가 되는데 두 가지 주체는 미디어는 BBC와 AP와 CNN 같은 승리자 국, 주체국의 기록을 받아서 쓰게 되고, 이라크 같은 경우에 보도는 매일 매일 미 연합군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미군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이라크 몇 명 사망 몇 명 부상 무었은 무었 이렇게 나오게 되거

든요, 그 공식 기록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가 조작되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이구요. 이라크 안에서 제가 만약에 저의 가족이 미군이 지나가다 실수로 총을 쏘서 사망을 했다면 미군에 가서 보상을 받으려면 제가 그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해요. 그때 몇 월 몇 일에 누가 어떻게 죽었고 증인인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해요 공식 자료라는 틀에 맞출 수 있도록 피해자가 공식기록으로 만들어야 해요.

여러분 아마 보증을 청구해 보신 분들, 재판을 청구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공식 기록으로 준비시켜가지고 틀 안에서 보상까지 받아 내는 과정까지 가려면 어려운 작업으로 남아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어려운 작업으로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더 그래요, 이라크 안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기록되는 과정 자체가 언론에 의존하는 한계, 미디어에 의존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의 아젠다에 유의한다면 기록되지 않는 것이 왜 기록되지 않는지 이유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이라크에서 사망자 성별을 확인하는 작업을 이라크 병원에서 했는데 그 작업을 CPA에서 중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0만 명 통계가 처음 발표되었어요. 그러면 이라크에서 발표되지 않는 것은 이미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그 안에 더군다나 여성의 사건이라거나 강간 같은 것이 누락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주변의 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성 평화운동에서 이라크가 되었던 어떤 평화문제가 되었던 운동의 아젠다를 가진다고 상정한다고 하면 기록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기억에서 기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공적으로 귀 기울여주고 그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운동의 공간으로 나와서 가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의 과제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김엘리 : 지금 제가 결론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세 분 선생님께서 하

시는 활동 자체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여성 평화운동이 여성만의 평화 운동이 아니라 그동안 평화 운동이 제한되어 왔었는데 평화운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잘 되었네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말씀을 하셔도, 질문을 하셔도 좋고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확장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진 : 개인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역사화 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의 기록이 '남성의 역사'라는 것이 자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중요한 국가 기관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 볼 때에 피해자 문제를 넘어서 여자가 봐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역사예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정말 어렵고 까다롭고 그런 절차의 목소리가 없어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거예요.

그 분들의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목소리가 없어지기 전에 기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시간

김엘리 : 질문이나 코멘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아 : 베트남에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정확한 집계가 되어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갔을 때 베트남 정부가 잘 한 것이죠. 베트남 정부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베트남 정부에서 보자면 그들은 정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군들이 들어가서 무작정 희생된 사람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부자라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가 워낙 가난한 이유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피해자가 나라를 위해

서 싸우다 죽으면 응분의 보상이 나오는데 민간인 학살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있지만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없는 상황인거죠.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동의를 하구요, 평화는 다양한 것 같아요 남성들이 말하는 평화, 여성들이 말하는 평화, 한국이 말하는 평화, 베트남이 말하는 평화... 평화는 너무나 다양하고 어떤 식으로 여성들이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평화 담론을 만들어갈 것인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의미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최기자 선생님의 (빨치산 여성과 관련된) 작업이나 베트남 감독이 만든 이런 작업들이 얼마나 소중한 작업인가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 같이 작업한다는 것이 아시아의 여성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아시아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참조자료>

기억의 차별과 가부장제

전쟁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다르다. 과거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위치와 계급에 따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성별 경험 역시 마찬가지다. 남성과 여성은 성별에 따라 다른 영역에서 각각 다른 경험세계와 의식세계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러므로 여성과 남성이 전쟁에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여성들 역시 제각각 다른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떤 여성은 전쟁통에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었고, 어떤 여성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베트남의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여성은 침략군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어떤 여성은 적극적으로 혁명활동에 참가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들이 진실을 둘러싸고 공존하고 있으며 그 기억 중에서 어떤 이야기는 공식적 이야기가 되고 어떤 이야기는 사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어 단절되거나 흩어져버리는 것이다.

특히 전쟁과 관련하여 여성의 경험과 기억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다. 지금까지 전쟁은 남성의 영역이라고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남성에 의해 기획되고 남성에 의해 수행되며 남성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 전쟁과 관련한 공식역사였다.

그러나 한국전과 베트남전을 겪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쟁은 결코 남성의 영역이 아니다. 여성은 전투와 생산과 간호, 노동 모든 분야에서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의 경험과 기억은 여성들의 현재의 삶을 규정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것은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공식적인 역사에서 제외하거나 은폐하거나 삭제했기 때문이다.

남성의 관점에서 본 역사해석의 틀은 여성의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보살핌의 영역을 공식적인 역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비정치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늘, 지속되는 사적인 체험으로 간주되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것은 다분히 정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더구나 한국 전쟁을 경험한 여성의 대부분은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며 공식적인 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드물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들의 공식적이지 않은 ‘말’ 혹은 ‘이야기’는 남성 중심의 언어로 구성된 공적인 역사 속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총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귀기울임이 필요하다. 여성들은 전쟁의 피해자이며 목격자이며 생존자이다. 오히려 전쟁의 생리상 남성이 가장 먼저 숨거나 피신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들은 도망가거나 피신하지 않고 전쟁을 경험한 집단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여성의 전쟁경험과 기억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듣더라도 사적인 기억, 이차적인 자료로 간주해왔다. 더군다나 좌익관련 여성들의 이야기는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거나 터부시되었다. 그녀들은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지”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민간인학살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여성들, 탈치산 활동을 했던 여성들의 경험은 부정되거나 터부시되거나 왜곡되었다. 아무도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들은 오랜 침묵 속에 유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녀들은 말하고 싶었으나 말하지 못했다. 출구를 찾지 못한 딸들은 마음의 감옥에서 유형의 세월을 보냈다. 몸을 가두는 것은 가시화되지만 말을 가두는 것은 눈에 보이지조차 않았다. 고립된 몸 속의 말은 자신을 발화시키지 못하는 몸을 물어뜯고 원망하고 생채기냈다. 말의 욕망은 말하지 못하는 몸과 부딪쳐 들끓고 신음했다. 낱말이 되지 못하는 관련, 끊어진 음절은 몸의 동굴에 갇혀 에코가 된다. 에코로 울리는 몸은 세상의 동굴에 갇혀 있다. 그녀들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에코를 들을 수 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듣고자 하는가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진다. 무엇을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역사해석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깥 때 그녀들의 이야기는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둘러싼 담론은 개인들의 기억의 차이에 주목할 때 비로소 진실을 드러낼 것이다. 비가시화되고 주변화되었던 여성의 경험이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재현될 때, 조각난 기억들로 흩어져 있는 여성들의 경험을 퍼즐을 맞추듯 서로 연결하여 전체 사회구조 속에 맥락화시켰을 때 비로소 세계는,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은 온전한 실재를 드러낼 것이며 해석될 것이다.

전시공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

여성의 몸에 증오를 각인하는 공간은 전쟁 중에 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혹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시공간은 여성의 몸을 통해 사람들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성화된 폭력(주)으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적' 남성에 대한 가장 상징적인 모욕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기가 된다는 가정 하에 전략적으로 채택되는 군사전술인 것이다. 이 폭력은 일상에서 여성의 몸에 부여하는 상징과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즉,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폭력이나 인권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여성이 속한 집단에 대한 수치나 불명예로 인식되어지고, 여성은 그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호명되어진다. 이것을 활용한 군사전략이 바로 전시공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시 여성의 몸은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수많은 상징과 기표들로 인해 점령당하거나 파괴당한다. 여성의 몸을 점령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곧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에 대한 모독과 파괴와 동일시되는 것(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시 여성의 몸은 남성들이 적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는 전무공간이 된다. 사실 가부장제 사회가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여성 몸에 대한 상징, 신화, 가정이 없다면 전시공간이 그토록 조직적, 체계적으로 일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공간은 가부장제 사회가 일상과 전쟁을 넘나들며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강화하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인들이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것도 그들의 의식속에 한국적 가부장제가 뿌리깊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들에게 강간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적의 여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학대당하는 것은 한국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행해졌기 때문이다. 일제식민기와 해방공간, 한국전쟁에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식민지였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통하여 혹은 문화를 통하여 그들은 수탈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성의 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상태로 베트남으로 향했고, 적의 여자들인 베트남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2차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산업을 부흥시키고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제 3세계의 모든 지역을 미국의 경제적 개입대상으로 여기게 된다. 세계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시작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도 미국의 이 야망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공언을 뒤흔치면서도 하듯, 2차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이 전체적으로 사용했던 6백만 톤보다 1.5배나 많은 약 9백만 톤의 폭탄을 그 좁은 땅에 퍼부어 베트남 전 국토의 초토화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이러한 전쟁에 한국군이 파견된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부도덕한 전쟁, 인류의 양심에 칼을 긋는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베트남전쟁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파병되는 것이다.

베트남이 어디에 있는지, 그 나라의 정세는 어떤지, 그들이 진실로 우리의 도움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전쟁의 잔혹함과 광기를 이해하기엔 너무나 늦부셨던 한국의 청년들이, 머나먼 남쪽(월남이란 말의 뜻)으로 가는 군함에 올랐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년여간 청룡, 백마, 맹호부대 등 총 31만 2853명의 다이한이 떠나면 열대의 땅 베트남을 다녀갔다. 그 중 4687명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이 열대의 땅에 부려놓고 원혼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32만의 과병된 병사들은 어떤 생각으로 베트남전쟁을 치루었을까.

베트남전 참전군인 이완홍씨는 기억나는 사건이 세 가지라고 한다. 첫째 69년의 백마부대원의 린선사 승려살해사건, 둘째, 백마부대원들의 모녀 윤간 뒤 피살 사건(72년 추정), 셋째, 맹호부대원들의 마을주민 성희롱사건(72년 추정)이다.

특히 백마부대원의 모녀 윤간 뒤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아마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구형된 뒤 귀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칸호아성 경찰국장이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사형을 시키려면 베트남에서 시키지 왜 한국으로 데려가냐고.” 칸호아성 성장으로부터도 “한국군이 남베트남을 도우러 와서 왜 양민만 죽이냐”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런 사건이 잇따라자 ‘한국군 철수’를 외치는 베트남인들의 데모가 몇 차례 있었고, 당시 남베트남 신문들은 한국군을 ‘꾸섬’(‘삼뿌리’라는 뜻)이라는 말로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주)<한겨레 21>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기억하기 싫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의 일부다. 베트남 중부 지방의 마을들에는 한국군에 대한 ‘증오비’가 서 있고, ‘타이한 제사’를 지내는 동네에서는 한국군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다. 꾸앙응아이성 선민현 폭탄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 역시 전형적인 민간인학살사건 중의 하나다.

1966년 11월14일 오후 2시, 베트남의 중부지역인 꾸앙응아이성 선민현에서는 용안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용안작전’이란 1966년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청룡여단 2.3.1대대가 변갈아가며 꾸앙응아이성 선민현에서 벌인 베트남 팔색 소탕 작전을 말한다. 19일동안 벌어진 이 작전으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 뿐

만이 아니라 수많은 베트남 민간인들이 참화를 당했다. 죽변마을도 마찬가지였다.

“불도제로 믿듯이 들어가며 닥치는 대로 집에 불을 지르고 기어나오는 사람들
들은 보이는 대로 다 갈겨버리는 겁니다.” 초가집이 30~40채 있는 작은 마을이
었다. 앞서가는 2·3소대의 뒤를 이어 중대본부도 마을에 들어섰다. 집은 불타고
있고 길바닥엔 아이들과 여자들, 노인들의 주검이 널브러져 있었다. 머리가 깨지
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주검이 무더기로 있는 곳도 보였다. 주)

그 참화의 와중에 레 티 응옥도 있었다. 당시 용안작전의 중대장이었던 참전
군인 김기태씨는 응옥을 이렇게 기억한다.

“얼굴도 예쁘고, 새까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20~25살쯤 돼 보이는 여자였
죠. 우리 대원이 ‘남편 어디 갔냐고 물어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사관
이 ‘쌍년’이라고 욕을 퍼붓고는 ‘베트콩 부인이다’면서 옷을 잡아 북 찢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얀 프랑스제 속옷을 입고 있었다.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
하사관이 “베트콩 간부의 아내가 틀림없다”며 총으로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미가
죽 찢어졌죠. 다가가보니 피가 마구 흘러내렸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위
생병을 불러 치료해 주라고 했어요.” 마취제 하나 갖고 있지 않았던 위생병은 옷
제때는 바늘과 실로 그냥 상처를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입을 앙다
물고 아프다는 비명소리 하나 지르지 않았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악종이고 적
개심이 있으면 저런 상황에서 ‘아’ 소리 하나 안 지르냐’ 하고 느꼈어요. 그 광경
이 너무 인상적이라 34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주)

이 이야기가 한국 참전군인이 기억하는 응옥이라면 베트남 사람들은 응옥을
어떻게 기억할까.

세 사람이 들려준 한 여자 이야기

응옥이 겪은 일은 세사람에 의해 증언되었다.

응옥이 집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올해 일흔 넷의 하 티 호이

다. 그녀는 응옥의 동서다. 즉 응옥 남편의 형의 부인이다. 농경이 삶의 주요 형태였고 대가족제가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었던 1960년대 말의 베트남, 형과 아우가 한 동네에 같이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연분홍색 뿔도리틀 입고 초록빛 바지를 입은 하 티 호이는 고운 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할머니였다. 험한 세월을 살아낸 사람답지않게 해사한 하 티 호이였지만 응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잔잔한 미소가 어려웠던 입매가 균형을 잃고 미간이 떨리기도 했다.

“그 날 아침 응옥은 까만 옷을 입고 있었어. 한국군이 집에 와서 응옥을 데리고 나갔지. 응옥은 놀라고 당황해서 내 아기를 외락 끌어안았어. 아기 엄마인 줄 알면 안 잠야갈 줄 알고 말이야. 그런데 아이가 자지려지게 우는 거야. 한국군은 응옥을 끌고 나갔어. 응옥은 안 끌려나가려고 문고리를 잡고 바둥댔지. 개미리관이 날아오고 응옥은 끌려나갔어.”

하 티 호이는 손을 저었다. 하 티 호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보라색 머릿수건을 쓰고 하 티 호이 옆에 앉아있던 응웬 티 마이 할머니가 거들었다.

“응옥은 이 마을에서 최고로 예뻐지. 피부도 하얗고 살결은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몰라. 빌어먹을. 응옥은 한사고 고개를 숙였어. 그 때 한 한국군인놈이 응옥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화 제끼는 거야.”

하 티 호이의 눈빛이 경련을 일으켰다.

“한국군은 우리를 마을의 공터로 끌고갔어. 그리고 한군데로 모아놓았지. 난 응옥이 강간당하는 걸 봤어. 굉장히 많은 한국군인들이 제쪽에서 응옥을 강간했지. 아마 이 때쯤이었을 거야.”

응웬 티 마이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있다.

윤간당하는 응옥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건 이 마을의 이장 응웬 락 러다.

여성의 침묵과 남성의 증언 사이에는 성고문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가 있다. 여성이 고통을 당하는 자라면 남성은 적어도 고통을 구경하는 객관자이다. 제2 4.3이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내전에서 집단강간을 당한 여자들은 스스로의 경험을 말하기를 꺼리거나 말하지 않는다. 상처난 몸의 고통을 몸 안에 지닌 채 침묵한다. 암묵적으로 강요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고통을 재현할 때 불러오는 공포 때문이다.주) '여성들은 당시 입었던 피해에 사투처 경험을 언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림화의 말은 강간을 당한 여성의 고통이 언어화 되는 과정과 남성이 당한 폭행 또는 고문이 언어화 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강간은 육체의 파괴이며 자아가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파괴를 의미한다.주)

"당시 나는 14살이었어요. 우리를 끌고가면서 한국군들은 자기들끼리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러나 VC, VC 하는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끌려갔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한자리에 모여져 있었어요. 모두들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죠. 군인들은 나와 응옥, 그리고 끌고온 사람들을 이미 끌고온 사람들 곁에 모았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라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응옥이 걸렸어요. 한국군 중에 누군가가 응옥의 고개를 확 뒤로 제웠어요. 그리고 응옥을 무리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응옥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시 이 곳은 선인장으로 나무울타리가 쳐져있었죠"

그들은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응옥을 데려갔다. 그리고 그녀를 차례차례 강간했다. 강간은 생물학적인 욕구라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공격을 통해 연대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의식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강간은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모두 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절 구해 주세요. 응옥의 비명은 얼마나 처절했는지... 응옥은 고향을 지르며 저항했어요."

하 티 호이의 미간이 사납게 모아졌다. 그녀는 가슴을 모아쥐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돌기만 해도 개머리판이 날아들었어요. 그 때 응옥이 마구 뛰어왔어요. 형들처럼 짓밟힌 응옥이 미친듯이 고향을 지르며 우리 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나 응옥은 다시 잡혀갔어요. 한국군인들은 응옥을 끌고가며 VC, VC 하고 소리쳤어요. 응옥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마를 개머리판으로 내리쳤어요. 응옥의 이마에서 피가 마구 쏟아져내렸어요. 그런 응옥을 데려다 한국군은 다시 강간을 했어요. 응옥의 비명으로 온 동네가 가득 찼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비명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응옥은 기절했어요.”

응옥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그들, 한국군인들이 했다. ‘베트콩의 마누라’가 응옥이었다. 응옥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응옥과 함께 살았던 사람, 응옥과 결혼을 한 어떤 남자가 그들에게 의미있었다. 그럴 때 여성에게는 어떠한 개인적 자아도 남겨지지 않는다. 여성들은 그 자신이 적이어서가 아니라, 적의 아내이기 때문에, 적의 딸이기 때문에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한다. 여성의 정체성은 그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남자들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강간은 끝이 났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순서였습니다.”

한국군들은 모아놓은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때 그 사람이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다.

“죽이지 말아요. 이 사람들은 VC가 아닙니다. VC가 아니에요. 그는 한국군이 아니었어요. 코가 길고 서양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도 몰라요.”

한국군인들은 남자 2명을 골라서 끌고갔다. 한 남자는 50세 정도였고, 한 남자는 16세 정도였다. 젊은 남자라곤 이미 마을에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귀가 잘린 채 죽어있었다. 아마도 죽고나서 귀가 잘렸을 것이다. 한국군은 베트콩의 코나 귀를 배어 전리품으로 가지고 다녔으므로.

“우리가 갔을 때 응옥은 혼절한 상태였어요. 옷은 다 찢겨져 있고, 이마는 꿰매져 있는 상태였어요.”

응웬 쩌 러의 이야기가 마무리지어지고 있었다.

“응옥이 돌아왔을 때 옷은 갈가리 찢겨져 있었고, 이마는 바늘로 꿰매져 있었어.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손도 피부성이에다 땅을 긁고 긁어서 손톱이 엉망이었지.”

하 티 호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 날의 응옥의 모습이 고스란히 생각이 나는 모양인지 미간이 좁혀졌다. 마을 사람들이 말을 하는 동안 하 티 호이는 그냥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살아난 응옥은 유격대에 자원했다.

“응옥을 보고 싶으면 남편한테로 가 보세요. 응옥의 남편집에 가면 응옥의 제단이 차려져있어요.”

우리는 죽변마을을 떠나 응옥의 남편이 살고 있는 꾸앙옹아이시로 향했다. 차 안에서 뒤돌아보니 하 티 호이는 아직도 오도카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 티 호이는 오늘 밤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이야기는 할머니가 증언을 하고 오는 밤이면 밤새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었다. 가슴이 떨리고 지나간 그 날이 자꾸만 생각나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기자들은 늘 할머니들에게 그 때의 이야기를 현실감있게 듣기를 원했고, 범정도 보다 상세한 증언을 요구했다. 할머니들은 역사를 위해, 빌어먹을 역사의 진실을 위해 증언했지만 마른침을 삼키며 해야 하는 증언은 모욕이며 공포며 또 한번의 소외였다. 범정은 늘 남자들로 가득했고, 그들 앞에서 끔찍한 기억을 반복해 말할 때마다 수치심으로 심장이 후들후들 떨렸다. 할머니들이 사용해야했던 언어

는 가부장제 사회의 폭력적 언어 이외에는 없었다. 할머니들은 집단강간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도 없었다. 어떤 할머니는 '당했다'라고, 어떤 할머니는 '그 짓을 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는 '손님을 받았다'라는 말밖에 자신의 체험을 언어화할 '말'이 없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식으로 파괴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할머니들은 자신의 몸의 어떤 부분을 지칭할 '언어'를 갖지 못해 당황했다. '거기' 혹은 '아래' '밑'이라는 말은 오히려 수치심을 자극했다. 몸에 대한 언어가 없다는 것은 존재하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여성의 몸에 대한 역설적인 이야기에 다름 아니었다. 할머니들은 그런 밤이면 가슴이 뛰고 손발이 떨려 잠을 제대로 못잔다고 했다. 밀림의 밤을 편밭로 해매거나, 길게 줄을 선 남자들이 기다리는 수용소의 작은 방에 갇히는 꿈을 꾸어야 했다.

우리는 응옥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꾸앙응아이로 돌아왔다. 그녀의 남편집으로 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응옥을 만날 수 있었다. 거실에는 제단이 차려져 있었다. 향과 꽃이 바쳐져 있는 제단에 응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의 응옥은 지적이고, 고집이 약간 있어보이고, 우아했다. 삶에 대한 오만도 살짝 엿보였다.

아오자이를 이쁘게 입고, 삼단같은 머리를 빗고 사진관 옆 간 모양이다. 이 사진이 생의 마지막 사진이 될 줄 그녀는 몰랐겠지. 양산을 받쳐쓰고 돌아올 때 인생은 아름다웠다. 허리를 굽혀 들꽃을 꺾으며 삶이 이런 식으로 이어질지 예측도 못했겠지. 꽃노래를 부르며 양산을 빙글빙글 돌리며 청춘의 그 날, 응옥은 행복해 보인다.

그때 응옥의 남편이 들어왔다. 작고 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의 남편은 한동안 우리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 응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를 예측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응옥이 강간을 당할 무렵 그는 산에서 간호병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응옥은 베트남족해방전선대원의 아내였던 것은 사실이다.

"산에서 나는 우리 마을에서 학살이 일어났던 얘기를 들었다. 모두 죽었다고

했다. 나는 응옥도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당시 나는 해방세력의 근거지였던 산의 병동 막사에 있었다.”

그런데 응옥이 찾아왔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왔다.

응옥이 죽은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살아서 눈 앞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표정없이, 약간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는 응옥이 참혹하게 죽었을 거라 상상했었는데 응옥이 눈 앞에 나타났다. 응옥이 살아난 것으로 나는 너무 기뻐다.”

응옥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분노를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꾸었다. 응옥은 용감한 전사였다.

1969년 10월 21일(음력), 그날 응옥에게 내려진 임무는 부상병들에게 먹일 야채를 구해오는 일이었다. 응옥과 두명의 동료는 야채를 구하는 일을 하고 빈 집에서 점심을 해 먹었다. 밤을 먹고 두 명의 동료가 잠깐 눈을 붙이는 사이 응옥이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저쪽 산등성이에서 미군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거리는 불과 10여미터에 지나지 않았다. 응옥은 침착했다. 그리고 소리를 걸었다. “미군이 온다. 피해라. 미군이 온다.”

소리를 듣고 두 명의 동료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총탄은 응옥의 이마를 관통했다.

응옥의 눈위로 베트남의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가 지금껏 살아오며 보았던 햇살 중 가장 눈부신 햇살이 한꺼번에 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하늘이 닫혔다.

1969년 10월 21일 응옥의 나이 스물 일곱이었다.

“우리는 다른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응옥의 죽음을 바로 전해들지는 못했다. 나중에 살아남은 두 사람으로부터 응옥이 그들을 구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두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

응옥의 남편 뚜이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지금은 퇴역했다. 처음 응옥의 제단은 응옥의 친정집에 있었다. 그러나 얼마후 뚜이는 응옥의 제단을 자신의 집에 차렸다. 응옥에 대한 제사는 자신이 지내주고 싶어서, 제삿날이 되면 그는 가족과 함께 응옥의 친정 식구들을 불러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열사들에게 나오는 지원금은 응옥의 부모님에게로 보낸다.

뚜이는 전후 재혼을 해서 자식들을 두고 있다. 뚜이의 부인은 응옥의 제단을 차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응옥은 강간당한 여자가 아니라 전사로 기억되고 있다.

베트남 남부 호아쑤언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한국군에게 강간당하고 남베트남 군인에게 강간당하고 미군에게 강간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강간박사’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말에는 어떠한 경멸이나 뼈적이 담겨있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강간당한 여자라는 인식을 넘어서 제국주의 군대에 의한 희생자임을 사회적 함의로 이끌어냈을 때 할머니들이 비로소 ‘더러운 여자’ 혹은 ‘강간당한 여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났듯이, 베트남 전쟁 중에 한국군이 나 미군에 의해 강간당한 베트남 여자들에게 베트남 사회는 불결하다거나 더럽다는 기호나 상징을 부여하지 않았다. 사회적 인식과 함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놓는다.

“당시 한국군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우리 가족을 찾아와서 만난다면 우리 가족에겐 복이다. 따뜻하게 맞을 것이다. 전쟁을 잊어버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

뚜이는 퇴역공무원답게 베트남정부의 공식임장으로 우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폭탄에서 나올 때 응옥의 동서였던 하 티 호이는 말했었다.

“나는 한국군을 만나면 너무 화가 날 거야.”

하 티 호이는 굳은 얼굴이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인민위원회 사람들을 힐끗 쳐다보더니 꼬리를 달았다. “정부가 용서하라니 하는 거지, 흥.”

강간전

베트남전은 강간전이라 불려도 될만큼 수많은 강간이 자행되었다.

‘강간’은 국제법상으로 위법일 뿐 아니라 군사 법규에도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은 전쟁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때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조직적으로 은폐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 중에 이러한 강간 사건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다. 누구도 전시의 강간을 가차있는, 혹은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에는 강간이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였다.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그러나 ‘전시 강간은 어느 나라에서나 있었다’는 견해는 강간을 하는 군인들에게 가책을 덜게 하고, 이 범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주)

베트남에 간 한국군인들 사이에서 불문을처럼 되어있던 것은 ‘강간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죽여라’는 것이었다고 한 참전군인은 말한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중인이 되는 셈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 중에도 강간을 당하거나 하면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자기 나라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에게 항의하고 시위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 사람들은 강간당했다고 그렇게 떠들지 못하잖아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감추고 숨겨야 할 일을 이 사람들은 부대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랬거든요.”

한국군인들에게 베트남 여성들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외국군인에게 강간을 당하면 자살을 하거나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어머니나

누이를 보고 자란 남성들이다. 일본군에 끌려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수치’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성폭행들이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물려지는, 부정한 육체를 거부하는 민족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배척받고 소외받아야 할 강간당한 여성들이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여자들. 수치와 두려움으로 침묵해야 할 그녀들은 때로 한국군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다.

강간당한 여성의 침묵이 암묵적으로 합의되는 사회에서 살았던 한국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고도 신고를 하는 베트남 여성들은 이해되지 않는 또다른 타자들이었던 것이다.

베트남전쟁을 기억하는 많은 한국남성들은 여성을 먼저 떠올린다. 그들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전에 군대주변의 술집에서 여성들을 샀고 그들로부터 하룻밤의 위안을 받았으며 베트남에 가서도 성매매를 했다. 그들에게 그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절차고 과정이었다.

이것은 베트남전에 온 미군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당시 미군은 군창을 운영했다. 미 육군이 성매매 사업에 개입하게 된 동기는 군인들이 성적욕구로 말미암아 여자의 육체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한다는 신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평불만을 누그러뜨려 평정화시키는 측면에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왜 이 전쟁에 와 있는지 모르는 군인들의 불만과 불안의 탈출구의 하나로 군창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주)

한국군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베트남인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간 전쟁에서 그들은 오히려 베트남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했고, 명분 없는 전쟁, 더러운 전쟁에 내던져진 자신을 만나야 했다. 한국군 수뇌부 역시 이들의 갈등과 전쟁의 광기를 무마할 대안을 찾았고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렸던 게 ‘위안부’였던 모양이다.

베트남전쟁 당시 주월시령관이었던 채명신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구성된 이른바 ‘위안부대’의 베트남 과병이 공식적으로 검토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않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베트남전이 좀 더 오래 진행되었다면 아마 위안부대라는 것이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군대와 관련한 성매매가 결국 정부에 의해 후원되고 거래되는 협상의 산물이라는 것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이어 베트남전에서도 여실히 보여진 예이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간을 당했던 위안부 여성들의 전쟁 체험은 한일 양국으로부터 은폐되고 축소되어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가부장제 사회는 일본군에 끌려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던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수치’로 인식하게 하여 그녀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소외시켰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 그것은 여성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치욕으로 고려되어졌다. 자기 민족 여자는 자기 것이며 그 여자가 다른 민족에게 강간당한 것은 남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시강간은 타민족 남성에게 의해 저질러진 민족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한국정부는 미군철수반대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데 기지춘 여성들을 특정방식으로 동원한다.

평화는 동사다

“너희가 전쟁을 알아?”

여성이 전쟁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국가 안보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말한다. 실제로 베트남 참전군인들과의 심포지움에 참석했을 때 그들은 팔뚝에 난 총상의 흔적을 내밀며 말했다.

“너희가 총을 쏘아봤어? 너희가 폭탄이 쏟아지는 전장에 있어봤어?”

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은 전쟁은 곧 전투를 의미함을 전제로 한다. 그들의 믿음대로 전쟁이 전투이기만 하다면 그건 차라리 행복한 일이었다.

전쟁은 전장이 아닌 곳에서도 일어난다. 그리고 전장이 아닌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의 비극성에 주목하지 않는다.

나는 1982년부터 7년간 나하 시의 부인 상담원으로 일하던 중, 미군을 상대로 일한 경험이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여성들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기지 주변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하면서 입었던 폭력의 후유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또한 그 원인에 대해 사회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이 점점 잊혀지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주로 어린이와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한 대충으로 미리 진 많은 액수의 빚으로 인해 강제 관리 대춘하에 놓여져, 벌어 들인 달러의 대부분을 대춘 관리자에게 착취당하면서 때로는 하루에 20명에서 30명이나 되는 병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베트남전 전장을 연상시키는 공공연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생활로부터 벗어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되살아나는 공포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해져 전신적, 신체적인 이상을 일으키고 있다.주)

다카시토 스즈요의 논문은 미국이 일으킨 베트남전쟁이 베트남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에 한 명의 군사도 보내지 않은 일본이 베트남전쟁과 연루되는 것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다.

베트남 경기로 불렀던 이 시대는 오키나와의 기지 주변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는 착취와 폭력이라는 이중의 억압을 받으며 살았던 시기였다. 1969년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약 7천 400명의 여성이 대춘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약 44만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미군에게 강간당하고 교살당한 여성들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였다. 미군 주둔은 순전히 정치, 외교적인 결정이었다. 그러나 군대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이차적인 문제로 간

파되어왔다. 군대와 기지의 존재가 오키나와 여성에게 있어서 폭력의 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무 외의 사적 행위로 처리되어 피해를 입은 것은 개인의 비극과 불행으로 축소되어 왔다.주)

직접적인 전쟁과 상관없는 오키나와 여성들이,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주둔기지, 위안기지였던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의 여성들이 직접 간접으로 베트남 전쟁과 연관되어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온 점을 생각해보면 때 전쟁은 전투현장에서 벌어지는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많은 한국 군인들이 고엽제로, 정신적 외상으로 고통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간호하고 돌보아야 했던 가족들, 특히 부인들의 경우 그들이 받았던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험난한 삶을 살아야 했다. 한 베트남 참전 군인의 부인은 자신 또한 늘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었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투가 멈추었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의 비극을 축소하고 전쟁에 연루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하는 일이다. 폭력이 멈추었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전쟁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이들이 원하는 일이다. 그들은 전쟁으로 인한 영혼의 상처라거나 복귀되어 지지 않는 상처 따위는 시선의 바깥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전쟁은 무력을 가진 이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 충실하게 세계를 재편해가는 과정이며 언제나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엠네스티 여성인권보고서는 여성과 어린이가 전쟁 난민의 80퍼를 차지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남성들의 몫이다. 아니, 무기와 권력을 쥔 남성전문가들의 몫이다. 통계수치와 과학적 근거와 이론들을 가지고 그들은 전쟁발발에 대한 사전준비, 힘의 균형, 자기 방어, 평화를 위한 전쟁담론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들의 자료 속에는 일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같은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빠져 있다. 그들의 브리핑 속에는 전쟁을 겪은 여성의 경험과 기억이 배제되어 있으며, 여성과 남성에게는 전쟁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것도 전제되지 않고 있다. 전쟁과 평화의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 여성의 삶이 위협스럽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상의 성차별적인 폭력이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사회를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가치체제라고 믿고 있는 성역할이 사실은 군사주의가 유지, 강화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전쟁은 적과 아군, 우리 민족과 타민족을 위계적으로 구분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줄 남성과 여성을 필요로 한다. 즉 전투는 남성다움의 본질이며, 전사를 낳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은 여성다움의 본성이라고 반목해서 주장하는 것이 전쟁이 기본전제로 하는 담론이다. 전쟁은 성역할을 고정시키고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차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원하는 원하지 않은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촘촘하게 짜여진 성역할의 구도 속에 편입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 공격 기억은 때로 개인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가 고안해낸 일방적, 억압적 기억일 수도 있고 상식처럼 되어 있는 모국의 번영과 지구의 평화가 한 계급을 억압하면서 혹은 한 계급만의 이익을 위해 합법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에 의심을 품어보는 것이 애국심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지배, 통제, 폭력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연적인 지배원리라고 간주되고 가부장제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치부되는 한 군사주의는 제거될 수 없다는 신시아 인로 교수의 말은 매우 유요하다.

여성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여성의 언어로 폭력을 폭력이라 명명하고 그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의 언어를 만들어낼 때 평화는 현실적인 힘을 얻는다. 그러한 맥락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여성의 경험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행위는 여성주의적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의 경험이 어떻게 부정되고 주

변화되는지 그 맥락을 드러내고, 기록된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침묵시키는지를 드러낼 때 전쟁의 구도 속에서 여성의 지점이 보일 것이다.

전쟁, 기억, 그리고 평화
점령의 그늘에 관한 짧은 리포트

가을,

다시 이라크를 향하는 짐을 꾸리며 가장 먼저 덜어낸 것은 비장함이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가을까지 내 속에 웅성이며 살아있는 죽음의 기억들,

깨어진 머리에서 흘러나오던 뭉클거리는 피와

땅에서 과녁 썩은 시체에 머리를 묻고 통곡하던 아내...

폭발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파르르 온 몸을 떨며 춥다고 춥다고 외치던 가느다란
이지즈의 신음

그 신음을 들으며 내게 아들을 치료할 약을 달라고 팔을 붙잡던 어머니의 손아귀...

그 기억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내 알팍한 이기심을

배낭 속에 꾸역꾸역 밀어 넣고 있었습니다.

6개월...

어느새 6개월입니다.

죽음의 문전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것이며

잘린 다리 위로 뭉툭한 새 살이 돋았을 터....

수아드의 편지 속에서 만나는 이라크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바그다드의 모든 남자들이 가지고 있던 총은 이미 수거되었고

이라크 군이 두고 쫓아내버린 수천 수 만개의 미사일들은 미군에 의해 모두 치워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기도 하루 몇 시간씩 들어올 뿐 아니라 전화도 지역에 따라 가능하다고...

차를 구할 수도 기름을 살 수도 없었던 바그다드 거리는 이제 전쟁 이후 밀물쳐

림 들어온 차탈들로

리시아워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나 이라크에 산다는 것이 점점 더 힘겹게 느껴진다고

전쟁 전 보다 깊은 어떤 절망이 찾아들고 있다고..

그녀에게 다시 이라크에 간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처럼...왜 다시 이라크에 오려고 하느냐고....

마그다드에서 요르단 1천km의 장야를 혼자 건너며 물고 또 물었던 그 물음.

배낭 속의 짐들을 털어내고 그 자리에 물음들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최고의 사건이었던 이라크 전쟁. 그것은 이라크인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종전 후 6개월, 미군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도 묻고싶은 건 나를 위한 물음들일 뿐인지도 모릅니다.

내게 이라크는, 전쟁은, 평화는 무엇인지...

나는 이제 이라크를 무엇이었는지, 이제 있어도 좋은 것인지...

어쩌면 더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 다시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던 지도 모릅니다

죽임의 풍경들, 머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죽음의 풍경들을 닦아내는 것은
평화의 기억밖에 없을 것으로....

그러나 9월 26일 동경을 출항한 피스보트(1200명이 탑승 가능한 큰 쿠르츠로 지
구를 돌며 평화여행을 하는 일본 ngo)를 타고 이라크를 향해 천천히 항해해 가던
한 달간, 이라크는 점점 저항의 태러로 땅과 사람들이 피와 두려움에 다시 젖어
가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압력 속에 파병의 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

피의 라마단..

10월 26일, 한 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이라크를 향하기 위해 터키의 숙소에서 눈
을 뜨니 CNN에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마치 이라크에 폭격이 개시되던 그날
처럼, 라마단의 첫날 바그다드 시내 곳곳에서 다시 폭파와 죽음의 총성들이 요란
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었다.

어제 새벽 비 속에서 함께 읽었던 한국-터키-일본의 이라크 파병반대 선언이,

선상시위를 하며 이스탄불 항구를 들어서던 피스보트(Peace Boat)의 거대한 전쟁반대의 배너가 그 화면 위로 꿈결처럼 살아왔다. 우리가 하는 작은 몸부림들이 과연 평화의 길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인가... 결국은 외치는 자의 양심을 위한 위무가 아닐런지... 그러나 그 아침 그 물음을 더 깊이 던지지 못한 채 일어나 다시 집을 꾸린다. 그 물음을 더 깊이 묻는다면 이라크에 다다를 수 없음을... 이미 눈치채고 있으므로...

저항의 날

터키를 통해 터키국경을 넘어 이라크 북부지역부터 내려가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다시 요르단으로 예돌아 가는 길을 택했다. 터키 국경의 산악지대에 진을 치고 있는 5천 여명의 쿠르드 무장세력 KADEK, 그들이 만들어 내는 전투의 뉴스들이 터키의 어느 가시도 그곳을 향할 수 없게 단되고 있는 것이었다. 더욱이 터키 과 명실이 나돌고 있는 그 즈음, 한국과 일본처럼 침략과 점령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양국의 국경은, 특히 1만명의 쿠르디스탄이 터키의 감옥에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다는 역사적 긴장과 내재적 대치 속에서 그 국경을 이방인과 함께 넘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다시 요르단, 지난 봄, 두달 여 바그다드를 오가며 인간방패와 난민구호활동을 했던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숙소, 알아미라에 도착했다. 그곳엔 이미 최혁, 김재복 등 반전 평화팀이었던 몇몇이 바그다드에 가기 위해 체류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 고스란히 앉아 우리는 이틀간 그 봄 우리가 그토록 날을 세웠던 동일한 논쟁을 반복해야 했다. 저항의 날,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국경을 넘는 걸음을 며칠 미루고 안전한 때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떠날 것인가... 무모한 '위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안전을 택한다 한들 그것은 과연 안전일 수 있는가.... 지난 봄 우리 스스로 이미 답했듯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늘 하나였다. 지금이 위험하다면 지금이 가장 평화운동이 필요한 때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위험의 수치를 재곤 했던 바로미터로 국경택시의 값은 130달라였다. 3월 폭격이 시작되기 전 100달라였던 것을 생각하면 30%나 오른 것이었으나 지난 4

월 12일 1천 7백 달러를 주고 샀던 것을 생각하면 그만금 이라크는 평화로워졌다고 생각해도 좋겠다고 마음을 쓸어 내리며 택시에 몸과 마음을 싣었다.

1천km, 요르단에서 바그다드, 14시 간여를 모박 차로 달려야 하는 그 먼 길을 떠난 것은 11월 1일 저항의 날 밤 12시, 그리고 도착한 것은 11월 2일, 일요일 오전 11시, 우리는 다시 평화의 도시, 바그다드에 도착했다.

한잠을 껴안고 서로의 뺨에 입을 맞추고 난 후 수아드는 묻는다. 무엇을 하기 위해 다시 바그다드에 왔느냐고....한잠을 우물쭈물 한 후 나는 대답한다. 미군의 점령에 대해, 이라크의 미래에 대해, 한국의 파병에 대해 이라크 사람들에게 직접 묻고 싶어서 왔노라고 언론의 입과 정부 조사단의 보고가 아니라 이라크 사람들의 심장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저널리스트들의 일이에요. 왜 당신이 이라크에 저널리스트가 되어 왔죠?”

다시 나는 또렷이 말한다. 언론이 보여주지 않는 것들을 보기 위해, 미국이 기록하지 않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한국의 정부조사단이 말하지 않는 이라크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는 잠시 저널리스트가 되어도 좋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수아드, 라이드와 쿠르디스탄의 두혹부터 남부 시아지역인 바빌까지 이라크 내 6개 도시를 방문하며 주요 정당, 언론, 학계, 종교계 지도자 등 오피니언 리더 인터뷰와 더불어 바그다드 대학 국제연구소, 한겨레와 함께 이라크 시민 1000명을 상대로 미군의 점령과 이라크의 현재와 미래, 한국의 파병에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 이라크인에게 길을 묻다. 그들의 이라크에 대해...

1. 7개 도시, 913명의 이라크 사람들에게 물었다.

미군의 점령에 대해,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정부의 파병에 대해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바그다드 대학의 국제연구소, 한겨레와 함께 진행한 이 조사는 이라크의 7개 도시(바그다드, 나자프, 키루크, 모술, 바빌, 팔루자, 카르발라), 913명의 시민을 상대로 이루어졌다. 열 개의 설문 문항을 통해 우리가 물었던 것은 전후 6개월간의 미군 점령기간 이라크인들의 미군에 대한 인식, 미군의 범죄에 대한 인식, 한국군의 파병에 대한 의견, 현재의 이라크와 이라크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전망과 기대였다.

첫 번째 번째 문항은 “지금 이라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였다. 응답자 중 39.7%는 지금 현재 이라크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와 테러 같은 안전문제라고 답했다. 34.4%가 정치불안을 19.8%가 경제불안정을, 6.1%의 시민들은 미군에 의한 불법검거 등의 인권침해 문제라고 답했다. 바그다드 대학 국제연구소의 정치학 박사 닥터 훗산은 설문분석을 하는 토론의 자리에서 이 응답들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이 질문의 경우 많은 질문자들이 무효처리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해 세 개, 네 개씩의 복수 응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의 경우 차례로 순서를 매겨 달라고 했다면 보다 정확히 이라크 사람들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이라크 사람들에게 이 총체적 혼란과 불안 속에서 하나의 이유를 단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크고 무거운 질문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미군정에 대한 지지와 반대를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55.45%의 시민들은 미군은 점령자이며 이라크를 당장 떠나야 한다고 답했다. 35.6%의 시민들은 미군은 이라크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이라크를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다는 절망 어린 답변을 선택했다.

우리는 민주적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원한다.

이라크의 향후 사회체제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들 대부분(61.4%)은 앞으로 이라크가 □민주적 이슬람국가□가 되어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구적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바랍은 20.7%, 연방국가는 14.0%, 사회주의 국가는 3.8%였다.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정된 25인의 파도통치위원회와 미군정이 이라크의 미래를 빚어가고 있는 전후 이라크 사회, 그러나 이라크 시민들이 원하는 이라크의 미래는 서구적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적 이슬람 국가였다. 전후 100개가 넘는 정당이 난무하는 이라크 사회, 그 속에서 이라크의 정치적 전망을 묻기 위해 찾아갔던 세 개의 주요 정당(쿠르드 민주당, 이라크 이슬람 당, 알다와당)중 하나였던 알다와당의 사무총장은 이라크의 정치적 문제와 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를 잃는 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100여 개 이상의 정당이 난무하는 정치적 혼란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35년간 하나의 정당 아래서 살도록 강제된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찾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라크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민주적 절차와 선거에 의해 이라크 인에 의한 민주정부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파병이 아니라 주권존중의 재건지원과 이라크인에 대한 신뢰의 시간입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 혼란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0.1% 한국군 파병 반대, 파병결정 지역 키루크 시민 95% 비전투병도 반대한다. 그러나 미국도 일본도 한국정부도 그들이 원하는 그런 시간과 지원을 준 의향은 없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이미 결정한 것이다.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이라크의 지식인들이, 이라크의 리더들이, 이라크의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물어야 하건만 파병을 위해 이라크를 찾는 정부의 조사단은 일주일여의 짧은 여정 속에 미국이 보여주는 것을 보

고 미국이 원하는 답을 가지고 돌아오곤 하는 것이다. 이 조사를 하던 당시 한국군의 예상 파병지역은 모술이었다. 그러나 12월 17일 정부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인 3천 7백여명의 파병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우리가 물었던 열 개의 문항 중 한국군 파병에 관한 두 개의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 중 80.1%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모술 92%, 키루족 100%, 나자프 100%, 팔루자 100% 등의 상상하기 어려운 선택 반대를 드러냈다. 전투병이 아닌 비전투병 파병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54.6%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거센 저항의 사건이 끊이지 않던 팔루자의 경우 100%, 파병결정지역인 키루족에서는 95%의 시민이 비전투병이라 할지라도 파병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금의 저항사건들은 미국의 부당한 침략과 점령에 대한 저항이다.

라마단과 함께 하루도 쉬임 없이 일어나는 테러의 사건들에 대해 전체 응답자 43.6%는 외국테러세력의 유입과 후세인 세력의 잔존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무려 29%의 시민들이 이 테러가 미국의 배후조정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모술의 경우 45.1%의 응답자가 이 대답을 선택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7.3%는 이 저항의 사건들은 미국의 부당한 침략과 점령에 대한 이라크 인의 저항이라고 답했다. 특히 파병확정 지역인 키루족에서는 71.4%가 팔루자에서는 88.9%가 이것은 이라크인에 의한 저항이라고 답했다. 미군이 보여주는 인터뷰에서 이라크인들이 이 저항은 외부세력의 유입과 사담의 잔존세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토론회 이야기 -

나마, 파울라, 모하메드

48.6%의 시민들, 미국범죄 폭격 증언

점령군이 이라크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42.2%의 시민들이 “점령군은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빨리 이라크를 떠나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같은 질문에 대해 팔루자 지역에서는 97.2%, 키루크 76%, 모술 55%의 응답이 나와 42.2%라는 전체 응답자 비율과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

동시에 미군정이 이라크인을 대한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53.2%가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군의 과병 예상지였던 모술에서는 84%가, 내년 과병예상지로 결정된 키루크에서는 66%의 응답자가 모욕과 무시를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바그다드의 시민들의 경우 49.8%가 그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라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답했다.

미군의 점령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감은 팔루자 지역 뿐 아니라 개전 후 비교적 미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모술, 키루크 등지의 북부지역에서 바그다드나 중남부의 도시들과 달리 상당히 큰 저항감을 표출했다.

우리가 거리에서 수없이 들었던 미군의 난사와 불법 검거 등으로 인한 민간인의 죽음과 부상 등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문제이며 이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인지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물었던 “미군의 범죄를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항목에는 무려 48.6%의 시민들이 미군의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38.3%의 시민들은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미군에 대한 저항이 끊이지 않았던 수니 트라이앵글의 팔루자에서는 100%의 시민들이 미군의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시아파들의 본산인 중남부의 나자프 시민들의 80%, 카르발라의 76.7%가 미군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라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들었던 미군에 의한 한밤중 불법 검거, 구금자의 살종, 수색중 약탈, 총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과 사망 등 다양한 미군의 범죄들이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희박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렇듯 이라크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었다.

II. 48.6%의 이라크 시민들이 목격한 점령 후 미군 범죄

겨울보다 차고 시린 봄의 그늘

하루에도 몇 건씩의 사건과 사고들이 터져 나오는 바그다드. 드디어 최근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사건 사고의 소식 이후 하루 이틀 정도가 지나면 미군이 그들이 체포한 바트 당 잔당이나 전 사담의 세력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11월 12일 제 전쟁 상황을 선포하며 거리에서는 수십 발의 폭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거리는 미군의 조사로 인해 이곳 저곳이 막혀 있다. 11월 1일 저항의 날과 함께 시작된 사건들이 증폭하며 미군의 범죄자에 대한 수색도 한층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매일 아침 10시 Conference Palace 에서는 미군 언론 담당자가 어제 하루 몇 명이 미군이 죽거나 다쳤는지, 혹은 몇 명의 범인이 잡혔는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외선에 제공한다. 그러나 바그다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 사건들의 행간. 10여 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해 1백여 명 이상의 이라크인들을 영장도 없이 끌고다니고 있는 의도된 침묵. 그들이 말하지 않는 점령의 그늘이었다.

지난 6월부터 미군 점령 이후의 미군 범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International Occupation Watch 의 사무국장 이란(53세, Iraqi)은 이렇게 증언한다.

□지난 5월 이후 이미 구금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4천명에 이른다. 불법적인 구금과 역류 자체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군이 이라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조사와 수색을 진행하며 엄청난 이라크인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여자들을 외부인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라크의 사회에서 그들은 한 밤중 들어와 옷도 스카프도 쓰지 않은 여자들을 수색하고 심지어 여자들마저 그 상태 그대로 체포해간다. 이라크의 여자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이것은 강간만큼이나 큰 모욕인 것이다.□

우리는 Occupation Watch Center에 보관된 파일 몇 개를 더 들여주어 보았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전후 6개월 미군들이 벌하고 있는 가장 큰 범죄 중 하나는 그들이 죽인 이라크 사람들의 시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몇 개의 과일을 보여주며 말한다.

8월 11일 죽은 여성의 시체를 넣어둔 채 불태워 버린 미군에 의한 차량 방화 사건, 8월 30일, 미군의 수색 중 총격으로 죽은 아들과 아버지의 시체를 아직도 찾지 못해 인권단체들에 신원하고 있는 한 가족의 케이스, 사무국장 이만은 죽은 시체들을 찾기 위한 이라크 인의 요청을 무시하는 미군들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라크 인은 모슬렘의 방식에 따라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가문의 묘에 묻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이다'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증언을 거리에서, 마을에서 우리의 눈과 귀로 마주할 수 있었다.

케이스 ① 죽은 아들의 시체라도 돌려달라

연합군 본부로 쓰고 있는 대통령 궁 앞에서 만난 압둘 하제즈(53세)씨는 한 달째 그 아들의 시체를 찾고 있는 중이다. 미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그의 아들은 길 앞의 거리에서 즉사를 했다. 그러나 미군은 아들의 시체를 그들의 차에 싣고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시체조차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는 대통령 궁 앞에 있는 미군병원에 아들의 시체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군에 의한 모든 사상자 혹은 부상자들은 일반병원에 가지 못한 채 연

합군에 속한 두 개의 병원 Airport Hospital, 그리고 대통령 궁 안 연합군 병원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들어가기 위해서는 CPA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했다. 영어를 하지 못하는 평범한 이라크 사람들은 그 허가란 것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심지어 NGO활동가들도 그 허가를 받기 어려운 터였다. 그 허가를 받으려면 방송사나 신문사가 발급한 ID카드 혹은 공식 문서들이 필요하다.

□나는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도 그들은 믿질 않아요. 다만 아들의 시체를 찾아 내 손으로 가족의 무덤에 묻어주고 싶은 것 뿐이라고 제발 시체라도 돌려달라고... 한 달째 모든 미군부대와 병원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왜 그들은 죽은 아이의 시체조차 돌려주지 않는 겁니까?□

케이스 ② 5월 이후 구금돼 돌아오지 못한 이들만 4천여 명

지난 10월 31일 천미 시장을 임명에 대한 팔루자 시청 습격 사건. 이틀 후인 11월 2일 미군은 팔루자의 한 주택가에서 한밤중 수색작전을 펼쳤다. 새벽 1시, 미군들이 들어와 집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 집의 세 남자를 체포해 갔다는, 하물며 돈까지 약탈해 갔다는 팔루자의 한 가정집을 찾아갔다.

어머니와 세 아들, 세 명의 며느리와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던 그 집에는 여자와 아들만이 오롯이 남아 있었다. 얼굴을 펴지 못하는 어머니 대신 며느리중 한 명이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밤 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바깥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미군들이 30여 명이 현관유리를 깨고 집으로 들어 왔어요. 때문에 작은 그들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거실과 부엌의 유리들을 깨고 냉장고며 가구들을 부수더니 마침내 마당에 있던 차 유리까지 깨려고 했어요. 열쇠를 주겠다고 열고 수색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안방까지 들어와 TV를 부수고 장롱 안에 있던 잠겨진 가방을 꺼내 그것을 총으로 억지로 열었어요. 그 안에는 그날 마침 차를 팔고 난 후 가지고 있던 5원불 정도의 현금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온 쿠웨이트 통역에게 제발 그 돈은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우리를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돈 뿐 아니라 우리 집의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왜 한 밤중 사람들을 데려가느냐고 어머니가 매달리며 물었지만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난 후 3일 동안 우리는 백방으로 식구들의 행방을 알아보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한 이웃 살람(45, 경영학 박사)씨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날 들었다는 폭발음, 그리고 한쪽 대문이 완전히 날아간 대문 상태를 보면 아마 그날 소형 폭발물을 장착했던 것 같다. 그날 이 동네에서만 10명이 인근 지역에서 7명이 그렇게 한 밤중에 끌려갔다. 이 집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조직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장남인 파묵 아비드(45)는 엔지니어였고 심지어 그 동생은 이라크 민간경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날 밤이 팔루자 시청 습격사건이 있던 다음날이라 아마 그들은 팔루자 지역의 테러범을 잡기 위해 그런 수색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뿐이다. 이 지역은 테러범과 상관없는 교사나 엔지니어, 시청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집단 주거지다. 그런데도 미군은 영장은 커녕 이유조차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 집에서 삼 형제를 체포해갔다.”

물론 그들은 이 집에서 테러와 연관된 어떤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도록 어디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연락조차 해 주질 않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자들끼리 집에 머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체포된 후 남아있는 여자들은 망가진 채 열린 집에서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다. 여자들뿐인지라 어디에 찾아가 호소를 하지도 못한 채...□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 들어온 그들의 사촌 알리 압둘라(32세, 가명)는 팔루자 미군부대에서 일한다고 했다. 때문에 그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그날 밤 그는 그 폭발을 우리가 깨지는 소리를 사촌 형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고

스란히 목격했다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날 나와서 그들을 위해 물거나 통역해 주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누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오면 바로 미군에 의해 저격을 당한다. 사람들은 그 수색의 현장 근처에 수 십명의 스나이퍼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해서 어떤 비명소리가 난다고 해도 나와 볼 수도 도와줄 수도 없다. 다만 자기 집에 그 일이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그는 그가 일하는 판무자 인근의 부대에서 아는 장교를 통해 구급차 명단을 확인했고 해서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들은 조사중이라며 다만 기다리라고 했다. 하물며 돈에 관한 것은 묻지조차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것처럼 미군내부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일반적인 이라크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가 잡혀갈 경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전 사담의 감옥이었던 아부그레이 감옥 앞에는 미군에 의해 체포된 가족들의 신원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날마다 장사진을 이룬다.

달없이 이곳 저곳 파괴된 곳을 보여주던 어머니는 이야기한다. □한 밤중이라 옷도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끌려갔어.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는 지 알 수가 없어.□

한 달째, 두 달째, 석 달째 죽은 가족의, 사랑하는 이들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 혹은 한밤 중 잠깐 가족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라도 확인하기 위해 연합군의 부대를, 감옥을 찾아다니고 있는 이라크 사람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이후 그들의 일상은... 그들이 견뎌내야 피점령국 국민으로서의 수모는... 헤방의 그들은 그토록 길고 시리다.

케이스 ③ 아부 그레이브 - 미군의 난사에 의해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찾아가다.

바그다드 교외 아부 그레이브 지역에서 가두 상점 진열대를 철거하려던 미군

차량이 어린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즉각 쫓겨, 양측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이라크 경찰관 1명과 시위대 3명이 숨지고 미군 2명과 이라크인 17명이 부상당했다. (10월31일자, AP/연합)*

며칠 전 기사를 들고 바그다드에서 조금 떨어진 아부 그레이브를 찾아갔다. 미군에 의한 한 아이의 죽음, 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봉기, 그리고 부상당한 17명의 사람들... 그러나 기사의 메인 타이틀은 다만 '미군 또 죽어, 바그다드 시장에서 자연 봉기 일어나기도'였다.

인구 50만의 아부 그레이브는 꽤 넓었다. 그러나 단 몇 번의 질문으로도 우리는 희생당한 아이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의 집에는 20여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서니 사람들이 함께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 방에는 그날의 시위와 미군의 진압으로 가게를 송두리째 잃은 이웃, 아이와 함께 있다가 손에 총을 맞은 아이의 삼촌, 다리에 총을 맞아 목발을 짚고 다니는 아이의 할아버지, 그리고 31일 미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발사한 총격에 숨진 오마르(16세)의 아버지 하비프(42)가 앉아 있었다. 오마르의 아버지에게 물었다. 그 날의 사건에 대해, 그리고 그 날 이후 아들을 잃은 그들의 삶에 대해....

*'금요일 낮, 갑자기 미국 탱크와 군인들이 시장을 밀고 들어오며 야채들을 짓밟고 상점문을 닫으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때리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모욕적인 사건 속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미군의 거센 철거작업에 화가 난 상인들은 바다에서 돌을 주워 던지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저항으로 미군의 진압이 더욱 거세지자 우리 가게로 7명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왔다. 우리는 그들을 숨겨주었고 거기엔 동생과 아들 오마르도 함께 있었다. 그 때 사람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미군은 무차별 발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사격으로 숨어있던 오마르가 이마 한 가운데 총을 맞았다. 그리고 여의사를 포함 몇 사람이 죽고 여러 사람이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 사람들은 모스크로 숨어들기도 했고 마침 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고 예배 후 모스크에서 나와 미군에게 소리치며 사격을 그만두라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미군은 그들을 향해서도 총을 쏘

았다. 그들 역시 땅바닥에서 돌을 주워들고 미군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다. 결국 4명의 이라크 인이 죽고 20명이 부상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답한다.

“미군은 그런 식으로 시장을 돌아다닌다. 사람들을 밀치고 나쁜 말을 하기 일쑤다.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들이다. 미군은 우리들을 장물아비나 폭도쯤으로 여긴다. 미군은 우리들의 존엄성을 짓밟고 언제나 먼저 폭력을 행사한다.”

이야기하는 그의 얼굴위로 효순이와 미선이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온다. 그에게 다시 물었다.

사고에 대해 보상이나 사과는 받았는지...

“사과? 보상은 커녕 그들은 장례식조차 금지했다. 시신을 들고 모스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총과 탱크로 저지하며 어떤 장례도 하지 말고 공동묘지로 가서 시신을 묻으라고 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미군은 작은 전단과 방송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는 붉은 글씨가 쓰여진 미군이 뿌린 전단을 보여주었다.

□어제 시장에서 저항세력과 범죄자들에 의한 폭력시위가 있었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 미군과 이라크 정부에 폭력으로 저항하는 자는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사고 직후 부상자들에 대해 그들은 그들의 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했다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말한다.

“그들이 이미 그날의 시위가 시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가면 치료 후 그들은 체포될 것이다. 누가 미군에게 치료를 받고 보상을 받으러 찾아가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상을 요구하기는커녕 손에 땀을 맞은 동생을 피신시켰다.”

평소에도 미군은 주민들을 폭도로 몰아 무조건 검거하고 있었다. 그날 사건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이유 없이 검거를 당한 주민들이 3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새벽 3시에 집으로 들어와 검거를 해 가는 일도 비밀비책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다. 오마르의 죽음과 관련해 형의를 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후회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위해 어떤 시위나 정치적 행동을 만들어 낸다면 미군은 다시 더욱 거세게 발포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저항세력이며 범죄자라고 선포했다. 만약 우리가 거리에 나가 오마르를 위해 부상자들을 위해 시위를 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폭도라며 발포를 할 것이다. 그들은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우리는 지금 그들을 향해 힘으로 저항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죽음을, 이 처욕을 기억할 것이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흐(씨족장)와 논의를 하여 끝까지 대응을 할 것이다.”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그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 그들이 찾아갈 수 없는 곳

말하지 않은 슬픔이...

20명의 피해자 가족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 콰울라와 비비안을 뒤로 하고 나오는 길.

바그다드를 떠나는 마지막 눈인사를 건네는 내게 비비안이 웃음을 보낸다.

그녀의 웃음 위로 마음 깊은 곳에 고여있던 시 한편이 살아온다.

말하지 않은 슬픔이 얼마나 많으나

말하지 않은 분노는 얼마나 많으나

들리지 않는 한숨은 또 얼마나 많으나

그런 걸 자세히 헤아릴 수 있다면

지켜이는 모든 말들

지켜이는 입들은

한결 건널 만하리....

정현중..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와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발송곳 자택 ☐ 직장 ☐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 ☐ 학생회원 (초·중·고생) 월3천원 ☐ 연2만원 ☐ 연3만원 ☐ 기타 ☐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경제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평화교육문화 ☐ 갈등해결 ☐ 평화심성 ☐ 소식지발행 ☐ 스타디오임 ☐ 평화축제 ☐ 기타 ☐	
가입일	200 년 월 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영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50 전승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 (서울은행) 예금주 : (사)평화물결만드는여성회

전쟁 속의 여성들, 전쟁의 기억을 살리는 여성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회 집 4층

전화 02-2275-4860 fax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6009(서울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